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관계 분석

장경자¹⁾ · 최재호²⁾

본 연구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관계 분석을 통하여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교육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G교육청 산하 초등수학영재 145명과 일반학생 16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족체계 및 진로태도성숙에 대해 지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수학영재는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 모두에서 일반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체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소별 관계에서는 가족적응성과 목적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소들 사이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초등수학영재는 가족응집성에서 일반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과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수학영재 및 일반학생 모두에게 가족체계는 진로태도성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등수학영재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의 진로지도를 하는 경우 가족체계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초등수학영재, 가족체계, 가족적응성, 가족 응집성, 진로태도성숙

I. 서 론

우리는 세계를 꿈꾸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인재, 미래를 책임질 영재를 절실하게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과 미래에서 보다 순발력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을 원하고 있으며, 글로벌화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어 개인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국가에서 영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살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영재교육의 목적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이다(영재교육진흥법, 2000). 그런데,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아실현의 의미도 모르고 부모나 주변 환

1) [제1저자] 청도 동곡초등학교

2) [교신저자]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경의 강요에 의해 또는 단지 지식이나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중학교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영재학생은 우수한 지적 능력을 지니며, 일반학생보다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나왔다(김미숙·윤초희·조석희, 2005). 하지만 여전히 학교부적응문제를 겪고 있는 영재학생이 남아있으며, 영재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에 따라 부적응 문제를 겪는 영재학생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재학생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반학생보다 우수하다는 인식 때문에 별다른 지도 없이도 자신의 진로를 잘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영재학생이 주변의 기대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실패 시 좌절감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일반교육과정 속에서 진로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진로교육은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영재학생의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재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재호(2006)는 초등학생의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박영숙·김종우·이상원(2010)은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의 일반특성, 가족구성원, 부모직업, 거주 지역 및 거주환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정화(2012)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비교연구에서 초등수학영재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가 일반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보다 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유선(2011)은 초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진로관련 변인 비교 연구에서 수학·과학 영재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밝힌 실제적인 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태도에 대해 더 성숙된 가치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수학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가 가족체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초등수학영재 및 일반학생의 가족체계가 진로태도성숙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가족체계의 하위 요소 중 어느 요소들이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진로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심리적·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며, 영재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영재의 정의 및 특징

영재의 정의와 관련되는 이론은 다양하다. Renzulli(1978)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의 세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영재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Sternberg(2003)는 지능을 분석적 영재성, 종합적 영재성, 실제적 영재성 세 종류의 지적 능력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영재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정규교육과정만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들로서 그들의 능력 수준과 관심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기술되었다(조석희·박성익·정태희, 2001).

영재의 정의와 특성을 토대로 수학영재의 정의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수학영재와 관련하여 송상헌(1998)은 수학 영재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적성 및 후천적으로 학습한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적, 정의적인 행동 특성이 수학적 사고 기능과 긍정적으로 조화롭게 작용하여 수학적 과제를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말한다(김양권·송상헌, 2010 재인용). 따라서 수학영재는 이러한 수학적 영재성을 가지고 수학 분야에서 이미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거나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김민정·류성림(2007)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영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수학영재들은 어린 나이에 언어와 수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경쟁심이 많고,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또한 활동적이며 모둠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교과 수업시간에는 발표를 자주하고 탐구를 깊게 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다. 또한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에 우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과제집착력이 아주 높고 수학적 성향이 강하다. 수학영재들의 정서적 특성으로는 수학영재들은 스스로 자기 반성과 격려를 통해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사회성이 좋다. 수학영재들은 수학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수학영재들의 학습행동 특성으로는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며, 즐겁게 영재교육원에 수업을 받으러 가며, 영재교육원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족해한다. 특수학문 영재로서 다른 영재들과 구분되는 수학 영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자영, 2009).

첫째, 수학적 사고능력이다. 수학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고능력을 의미한다. 하위요소로는 직관적 통찰능력, 정보의 조직화 능력, 공간화/시각화 능력, 수학적 추상화 능력, 수학적 추론(연역적, 귀납적 사고)능력, 일반화 및 적용 능력, 반성적 사고 능력이 포함된다.

둘째, 수학적 과제집착력이다. 일정 시간동안 끈기 있게 수학 문제에 몰두하는 능력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 인내심, 지속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집중력, 자기 신뢰감 등과 관련된다.

셋째, 배경지식이다. 배경지식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다른 영역의 지식을 의미한다. 지식에는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배경지식은 수학적 지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수학적 지식 이외의 지식(과학적, 언어적, 사회적, 예술적 지식 등)이 수학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수학영재에 대한 여러 이론을 살펴본 결과, 수학영재란 현재 수학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학영재란 수학적 사고능력과 수학적 과제집착력, 수학적 창의성을 지니고, 수학적 흥미와 호기심, 자신감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가족체계(Family system)

가족체계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아, 하위체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전체로서 유지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의 변화에 반응하는 융통성 및 허용 정도를 말하는 가족적응성이 포함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김재호, 2006; 이문행, 1993; Minuchin, 1974).

Olsen, Rusell & Sprenke(1983)는 가족응집성을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가족관계를 응집성 정도에 따라 유리된(disengaged), 분리된(seperated), 연결된(connected), 속박된(enmashed)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응집성이 낮은 순서부터 유리된 집단, 분리된 집단, 연결된 집단, 속박된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때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속박된 집단은 가족구성원의 지나친 동일시로 구성원간의 유대감이 너무 강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면, 응집성이 낮은 유리된 집단은 구성원간의 유대감이 낮아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응집성 수준이 적당할 때에만 가족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와 관련된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때문에 가족 상호작용의 몇 가지 측면인 가족의 변화에 반응하는 융통성의 정도, 가족의 지도력, 권력 및 훈육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즉, 가족생활의 압박이나 갈등의 반응에서 그들의 규칙, 역할, 구조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의미한다. Olsen et al.(1983)은 가족적응성을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그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적응력이 있는 체계는 변화와 안정성이 균형 잡혀 있을수록 융통성 있는 훈육방법, 지도력,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 역할분담, 분명한 규칙 등 내적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 그들은 적응성의 정도에 따라 가족체계를 경직된(rigid), 구조적(structured), 융통적(flexible), 혼란된(chaotic) 집단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응집성 차원과 마찬가지로 중간 수준인 구조적, 융통적 수준에 속하는 가족체계가 이상적이며, 극단적인 두 수준인 경직과 혼란에 속하는 적응성은 가족원들의 행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김재호, 2006 재인용).

3.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

진로태도성숙이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신과 여러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계획해 나가면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신과 비슷한 연령이나 동일선상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 있는가를 진로태도성숙이라 이해할 수 있다(Crites, 1978; 지용근, 2004).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소와 관련하여 이기학(1997)은 개방형 질문지와 개인면담에 의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태도성숙 검사도구의 검사 영역과 동일하며 각 하위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정화, 2012 재인용)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결

정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반면에 결정성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혼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목적성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선택 시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장래 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 개발, 대인관계 등과 같은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목적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현실적인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정도를 더욱 선호하여 현실과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반면 그 정도가 낮은 사람은 현실적인 욕구를 더 중요시하여 일의 의미를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외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이다.

확신성은 자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확신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 안정감을 느끼며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확신성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신이 앞으로 갖고자 하는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다.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준비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정도가 낮은 사람은 필요한 정보와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은 사람이다.

독립성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독립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을 따르는 주체성 높은 사람이고, 반면에 독립성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선택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위 사람의 의견 및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되는 진로태도성숙, 가정환경, 가족체계, 영재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상길(2002)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외부 환경과 심리적인 요인 및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또래관계 등이 있는데,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지지, 가족체계 등과 같은 가정 환경적 요인이 진로성숙 및 진로태도성숙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오숙희(2003)는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를 선택 시 영향력이 많은 순서는 부모님, TV, 책, 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직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여러 변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강영숙(2002)은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성숙도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를 통하여 이들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초등학생들의 진로교육은 진로인식단계이므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학교현장에서 전개해야한다고 하였다. 지용근(2004)과 김상숙(2004)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의식 수준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으며, 진로의식 수준에 있어 농촌지역 학생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진로의식이 낮으며, 가정의 지위 상승적 가치지향, 물질주의적 지향, 전통주의적 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의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김재호(2006)는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에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초등학생의 가족체계 요인 중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진로태도성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적응성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준비성이 가족체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였다. 박영숙 외(2010)는 초등학생의 가정환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연구에서 개인의 일반특성, 가족구성원, 부모직업, 거주 지역 및 거주환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고 가정환경에 맞는 진로지도를 한다면 초등학생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범진(2011)은 초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개인요인(다중지능,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가족요인(부모의 양육태도), 친구 및 교사요인(친구 및 교사의 지지)이 진로태도 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초등영재학생은 성취동기, 교사의 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다중지능, 자기효능감, 친구의 지지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은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다중지능,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정화(2012)는 초등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으며,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 세 가지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전체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가 일반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보다 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자영(2009)은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비교 연구에서 영역할정체감에서 양성성 유형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에 비해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유리(2010)는 상위인지 전략 및 몰입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몰입은 영재학생이나 일반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자기효능감, 가정환경, 가족체계 등 여러 가지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진로인식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에서의 진로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며 성별, 출생순위 지역, 학업성적, 부모직업,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적절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재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영재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초등수학영재는 G교육청 산하 4개의 수학영재교육원 72명(5학년: 19명, 6학년: 53명), 2개의 초등학교 수학영재학급 35명(5학년: 35명), D대학교 수학영재교육원 38명(5학년: 19명, 6학년: 19명) 전체 145명의 학생을 표집 하였다. 일반학생은 G교육청 산하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7개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으로 영재교육기관에서 지금까지 영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167명(5학년: 78명, 6학년: 89명)을 선정하였다. 초등수학영재는 영재성 판별검사, 면접 등의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며, 일반학생은 영재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임의로 표집하여 변인들이 최대한 골고루 고려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하였다.

2. 연구 절차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 및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검사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초등수학영재, 가족체계,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검사 도구 문항을 작성한 후, 본 조사에 앞서 문항들의 양호도를 검토하기 위해 일반학생 10명과 수학영재학급학생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진로태도성숙 검사지에서 학생들의 용어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이를 전문가와 동료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표 1>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표 1> 진로태도성숙 예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도구의 수정·보완

	예 비 문 항	예비검사 결과에 따른 수정
2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다.	적은 → 적이
4	나중에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 잘 모르겠다.
8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하는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근무시간 → 일하는 시간
14	나는 내가 선택할 진로(학교,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 앞으로
16	장래에 선택한 직업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직업이 → 직업으로
28	내가 가고 싶은 학교나 직업을 다른 사람들(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지지가 있어야만 →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절차 및 내용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방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주제 설정 ◦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2012. 9. - 2013. 1.
검사 도구 및 문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체계,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검사 도구 선정 ◦ 예비 조사 문항 작성 및 실시, 검토 ◦ 본 연구 문항 작성 	2013. 2. - 2013. 3.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도구 문항 투입 및 조사 실시 	2013. 3. - 2013. 4.
연구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 연구결과 정리 	2013. 4. - 2013. 6.

3. 검사 도구

가. 가족체계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가족체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는 김재호(2006)가 개발한 가족체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 검정 결과 0.895로 나타났다. 이 검사도구는 Olsen et al.(1983)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FACESⅢ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Ⅲ)를 전귀연·최보가(199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것이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5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체계 측정도구 FACESⅢ의 검사 영역은 <표 3>과 같다.

<표 3> FACESⅢ의 검사 영역 및 신뢰도

검사 영역	하위 영역	문항 번호
가족 응집성	① 가족의 정서적 유대	11, 19
	② 가족의 지지	1, 17
	③ 가족원간의 경계	5, 7
	④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3, 9
	⑤ 가족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	13, 15
가족 적응성	① 가족의 지도력	6, 18
	② 가족의 통제	2, 12
	③ 가족의 훈육	4, 10
	④ 가족의 역할 및 규칙	8, 14, 16, 20
계	20	

나. 진로태도성숙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 검사 도구는 김재호(2006)가 개발한 초등학생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며,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0.727로써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고등학생용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검사 도구로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가지 하위 요소로 되어있다. 사용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처리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들 각각 해당 항목들의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검사 영역은 <표 4>와 같다.

<표 4> 진로태도성숙 검사 영역 및 내용

검사영역	검사 내용	문항번호
결정성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	1-6번
목적성	개인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	7-12번
확신성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	13-18번
준비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준비,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	19-24번
독립성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	25-30번
계	30	

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했으며, 가족체계(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및 진로태도성숙(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검사 도구에 대해 신뢰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또한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개별문항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해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검정(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의 가족체계의 차이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의 가족체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체와 하위 요소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족체계에 대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족체계에 대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차이

내용	집단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가족체계 전체	초등수학영재	3.8348	.58800	4.928**	.000
	일반학생	3.4775	.67965		
가족 응집성	초등수학영재	4.0952	.60614	4.559**	.000
	일반학생	3.7293	.80744		
가족 적응성	초등수학영재	3.5745	.65158	4.705**	.000
	일반학생	3.2257	.65408		

(**p <.01)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 전체에 대해서 초등수학영재는 평균 3.8348, 일반학생은 평균 3.4775로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0.36 더 높게 평균이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t=4.928$, $p <.01$). 또한 가족체계 하위 요소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해서도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t=4.705$, $p <.01$).

이를 통해 가족체계 전체와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모두에서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가족생활의 압박이나 갈등의 반응에서 그들의 규칙, 역할, 구조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및 의지가 더 강하여 가족구성원끼리 잘 협조하고 함께 보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2.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간의 진로태도성숙 차이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태도성숙 전체와 하위 요소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차이

내용	집단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진로태도성숙	초등수학영재	3.8218	.49228	5.854**	.000
	일반학생	3.4888	.50870		
결정성	초등수학영재	3.9851	.84252	2.867**	.004
	일반학생	3.7036	.88389		
목적성	초등수학영재	3.7437	.80747	4.209**	.000
	일반학생	3.3393	.87867		
확신성	초등수학영재	3.8494	.71073	3.694**	.000
	일반학생	3.5250	.84086		
준비성	초등수학영재	3.6563	.80032	2.535*	.012
	일반학생	3.4182	.85040		
독립성	초등수학영재	3.8747	.65720	5.347**	.000
	일반학생	3.4581	.71082		

(*p<.05, **p <.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태도성숙 전체에 대해서 초등수학영재의 평균은 3.8218 이고, 일반학생의 평균은 3.4888로 초등수학영재의 평균이 0.33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t=5.854$, $p < .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정화(2012)의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소에 있어서도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준비성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안정감을 느낀다. 일반학생은 현실적인 욕구를 더 중요시하여 일의 의미를 경제적 보상과 같은 외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지만 수학영재학생은 현실적인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정도를 더욱 선호하여 현실과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관심이 많으며,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을 따르는 주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가. 전체학생의 가족체계 및 진로태도성숙 상관관계

조사대상 전체학생(312명)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체계 하위 요소 2가지와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소 5가지와의 상관관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전체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상관관계

관련 영역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전체
결정성	.218**	.231**	.240**
목적성	.113*	.091	.108
확신성	.220**	.300**	.280**
준비성	.349**	.397**	.400**
독립성	.268**	.271**	.288**
진로태도성숙 전체	.359**	.397**	.406**

(* $p < .05$, ** $p < .01$)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학생의 가족체계 전체와 진로태도성숙 전체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체계 전체는 목적성을 제외한 진로태도 영역 하위 요소와도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성숙전체는 가족체계의 하위 요소와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족체계 하위 요소와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적응성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태도성숙전체와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목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태도성숙 전체와 유의수준 1%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목적성과는 유의수준 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집단이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 요소들 중 목적성을 제외한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초등수학영재의 가족체계 및 진로태도성숙 상관관계

초등수학영재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상관관계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8> 초등수학영재의 가족체계 및 진로태도성숙 상관관계

관련 영역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전체
결정성	.258**	.200*	.246**
목적성	.208*	.139	.187*
확신성	.219**	.162	.205*
준비성	.324**	.413**	.393**
독립성	.155	.143	.159
진로태도성숙 전체	.366**	.333**	.375**

(*p<.05, **p <.01)

<표 8>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등수학영재의 가족체계 전체와 진로태도성숙 전체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체계 전체와 진로태도 영역 하위 요소를 살펴보면, 독립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목적성과 확신성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결정성과 준비성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태도성숙 전체는 가족체계 하위 요소와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초등수학영재의 가족체계 하위 요소와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진로태도성숙 전체와 유의수준 1%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목적성과는 유의수준 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성은 결정성과는 유의수준 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준비성과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반학생의 가족체계 및 진로태도성숙 상관관계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상관관계검정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9> 일반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상관관계

관련영역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전체
결정성	.125	.202**	.180*
목적성	-.064	-.026	-.046
확신성	.147	.320**	.261**
준비성	.328**	.359**	.371**
독립성	.253**	.260**	.276**
진로태도성숙전체	.250**	.360**	.334**

(*p<.05, **p <.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가족체계 전체와 진로태도성숙 전체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체계 전체와 진로태도 영역 하위 요소 중 목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결정성은 유의수준 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머지 하위 요소와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태도성숙 전체는 가족체계 하위 요소와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학생의 가족체계 하위 요소와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적응성은 목적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 변인과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은 준비성과 독립성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재호(2006)의 초등학생에 대한 가족체계는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고,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준비성이 가족체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낸 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수학영재는 가족응집성 요소와 관련하여 일반학생보다는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보다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미루어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장래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일반학생이 가족적응성에 있어 초등영재학생보다는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보다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학생은 가족의 융통성 있는 훈육, 지도력,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 역할분담, 분명한 규칙 등 내적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가족체계 및 하위 요소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가족생활의 압박이나 갈등의 반응에서 그들의 규칙, 역할, 구

조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및 의지가 더 강하여 가족구성원끼리 잘 협조하고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와 일반학생 모두가 안정적인 가족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가족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등 모든 하위 요소에서도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는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안정감을 느끼고, 현실적인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정도를 더욱 선호하여 현실과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초등수학영재는 일반학생에 비해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관심이 많으며,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을 따르는 주체성이 높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가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초등수학영재는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전체와 독립성과의 관계, 가족적응성과 목적성, 확신성과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 요소들 사이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수학영재학생이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보다는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성을 따르는 주체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학생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전체와 목적성과 가족응집성과 결정성, 확신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족체계 전체와 나머지 하위요소들 사이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일반학생은 가족의 융통성 있는 훈육, 지도력,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 역할분담 등 내적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는 가족응집성에서 일반학생보다는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보다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장래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있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일반학생보다 초등수학영재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태도성숙은 가족체계의 하위요소인 가족응집성에서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나 일반학생의 진로를 고려할 때,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초등수학영재의 진로지도는 하는 경우 학생이 미래지향적이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가정에서의 자율성, 융통성, 가족의 지도력, 부모의 양육태도, 역할 분담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영재학생을 직접 면담하거나 관찰하는 심층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관찰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영숙 (2002).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진로자아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윤초희, 조석희 (2005). 우리나라 중학생 영재의 지적 정의적 특성. **아시아교육연구** 6(3), 25-58.
- 김민정, 류성림(2007). 수학영재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C <초등수학교육>** 10(1), 41-56.
- 김상숙 (2004).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선 (2011). **초등 영재학생의 유형별 특징 및 일반학생과의 진로관련 변인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권, 송상현(2010). 초등 수학 영재를 위한 도형수 과제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4(3), 745-768.
- 김재호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박영숙, 김종우, 이상원 (2010).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韓國初等教育** 20(2), 151-171.
- 송상현 (1998). **수학 영재성 측정과 판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범진 (2011). **초등 영재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재교육진흥법 (2000). **영재교육진흥법 법률 제6215호**.
- 오숙희 (2003).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문행 (1993).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유리 (2010). **수학과학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상위인지전략 및 몰입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비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길 (2002).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어머니 취업 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여고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화 (2012).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비교**.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 최보가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0), 157-173.

- 정자영 (2009).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석희, 박성익, 정태희 (2001). **영재교육 실천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지용근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1), 106-122.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ies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McGraw-Hill.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lse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n*, 180-184.
- Sternberg, R. E. (2003). Giftedness according to the theory of successful intelligence.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3rd Ed., pp.88-99). Boston, MA: Allyn & Bacon.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athematically Gifted and Non-Gifted Elementary Students

Jang, Kyung Ja³⁾; & Choi, Jae Ho⁴⁾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mathematically gifted and non-gifted elementary students in the family syste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and provide assistance for career education for both groups.

The subjects include 145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73 fifth graders, 72 sixth graders) and 167 non-gifted students (78 fifth graders, 89 sixth graders) in G educational agencies. Materials for the experiment include amended family system tes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est. While t-test was conducted to solv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olve the other one.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compared to non-gifted students, turned out to have higher rates of the family syste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rate and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relationship.

Second, the lower components of the family syste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re seems to be no relationship between family-flexibility and finality. However, among other components, there was a level of significance at 5% which shows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relationship.

In summary, this found that the family system is able to have an effect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both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Hence, it need to be considered the components of family system when the teacher guides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associated with their career.

Key words: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family system,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career attitude maturity

논문접수: 2013. 11. 16

논문심사: 2013. 12. 17

게재확정: 2013. 12. 19

3) kj5462@naver.com

4) choijh@dnue.ac.kr